

절화수국 수도 강진군

화훼1번지로 '우뚛'

일본수출 91% · 20리 수국꽃길과 공원 조성



강진군이 절화수국 수출 분야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강진군 그린화훼영농법인은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상반기에 총 24회에 걸쳐 6만 본의 절화수국을 일본에 수출했으며 2억5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수출량 53만 본, 총 27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린화훼영농법인은 10년 전부터

일본시장에 수국 수출을 시작했으며, 현재 19명의 회원들과 함께 4.9ha 면적에서 절화수국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수국은 전남 수국 생산량의 61%, 수출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일 수출물량의 91%를 담당하고 있다. 군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공모사업으로 4억3천만 원을 확보해 저온저장고 7동과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지

원하고 최근 수출용 화훼 유통 장비에 1억6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린화훼영농법인 김양석 대표는 "세계 화훼 시장에서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다행히 군과 농가가 하나뉘어 우수한 수국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어디가나 인정받는 강진산 수국이 되었다. 한국 수국은 꽃이 오래가고 화색이 좋아 해외에서도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군은 수국의 관광상품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강진을 고성사, 금곡사, 보은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총 8km에 달하는 수국 꽃길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20리 수국 꽃길과 연계한 4천 평 규모의 대형 수국공원을 만들어 강진군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화훼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어 농가 소득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신안군, '세계 화석 광물박물관' 개관

1004석 신안군은 24일 '예술의 섬' 안좌도에 회귀 화석·광물이 전시된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하여 문화예술인 등 각계 각층의 초청 인사 500여명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이 들어선 안좌도는 세계적인 화가 수화 김환기가 태어난 곳이며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배출하여 '예술의 섬'으로 널리 알려져, 해마다 많은 예술인들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위대한 화가의 발자취를 둘러보고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이번 개관한 '세계 화석·광물 박물관'은 신안군이 2009년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가 된 안창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전시공간과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꾸었다.

해남군, 어촌뉴딜 300 사업 속도낸다

구성항·두모항 연내 착공 해남군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2019년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화산 구성항과 현산 두모항 등 2개소에 대해 2개년에 걸쳐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어촌·어항의 생산기반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산 구성항은 총 사업비 80억 4,500만원을 들여 물양장 및 방파제 설치, 여객 대합실, 어업 기자재 보관창고, 물김 공동위판장 신축, 수산물 유통 및 판매장 신축, 바다 낚시터 설치, 맨손잡이 체험장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한 현산 두모항은 방파제 시설 보강, 부잔교 설치, 항내 매물 퇴적토 준설, 공동 작업장, 어항 진입로

확장, 굴 박신장 신설, 굴 패각처리 및 사료화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문단의 현장지문을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수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를 앞두고 현지 조사를 통해 5개소를 선정, 예비계획서 작성과 주민역량강화 및 공모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0년 사업 공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도군, 감성과 흥 있는 '진도아리랑 오거리 버스킹' 시작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도군이 오는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진도읍 원도심 진도새마을길 앞에서 '진도아리랑 오거리 버스킹'을 시작한다.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솔비치 호

텔&리조트 진도 개장과 여름 휴가철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진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진도만의 특화된 거리문화공연 등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진도읍 원도심 상권을 회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도아리랑 오거리 버스킹을 진행한다. 군은 지난 6월 말까지 진도 토요일 버스킹 공연단체·개인 공개 모집을 해 73개팀이 지원했으며, 공연실적, 장르 적합성, 공연계획, 프로그램 예술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개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60개팀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구, 광주 등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버스킹들로 악기연주, 노래, 댄스뿐만 아니라 마술, 서커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도읍 아리랑 오거리에서 ▲이상무서커스단(서커스) ▲남만사오정(밴드) ▲규민(보컬) ▲진도색소폰동호회(색소폰) ▲삼총사(트로트) ▲진도연예인협회(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최고품질 쌀 생산·공급 거점단지 공모 선정

완도군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최고품질 쌀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완도만의 브랜드 쌀 생산 및 유통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지역적 특성상 쌀 산업에 관해서는 비교 우위에서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전남의 다른 시군을 제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고품질 쌀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은 외래 품종이 국내에서 브랜드 품종으로 유통되는 문제

점을 개선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밥 맛이 뛰어난 품종을 선택하여 브랜드 쌀로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이 쌀 산업 분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조명1호', '새청무'를 선택하였으며, 군 자체적으로 햅쌀 및 이모작 브랜드 단지 200ha 이상 조성,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 노력 등이 공모 선정에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완도군은 민선7기 쌀 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식량 작물 분야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군에서는 최고품질 브랜드 쌀 단지 육성을 위한 준비로 약 40여 농가의 조직체를 구성하여 3월부터 품종 특성 교육을 시작으로 명품 브랜드 쌀 재배 달력 제작, 탑라이스(Top Rice) 매뉴얼 교육, GAP인증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찾아가는 노인대학' 치매예방교육 성료

영암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11개 읍·면 노인복지회관, 농협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노인대학' 노인대학생 1,700명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암군보건소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초고속 증가에 따른 인구고령화와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로 치매질환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져 '찾아가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에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영암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인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홍보 등 전반적인 사업 안내와 함께 건강행복 연구소 전문강사를 통해 치매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원인을 알아보면서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의 교육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을 제공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에 복합형 숙박시설 들어선다

여수예술랜드와 투자협약 목포에 레저와 예술이 결합된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목포시와 전남도는 25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주)여수예술랜드와 대규모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여수예술랜드는 목포시 울도동 장좌도 일원(292,748㎡)에 1,500억 원을 투자해 370 객실 및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대형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

다. 이번 투자협약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 370객실(일반펜션, 수상펜션, 글램핑), 3D 트리아트 체험관, 워터파크, 조각공원, ATV(사륜바이크), 스카이버이크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대규모 숙박시설 부재로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목포에 아름다운 바다와 섬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해양레저시설 복합 대형 리조트가 들



어서게 되면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투자자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맺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